

무더기 정리해고 앞둔 이스타, '이상직 책임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정치권, 책임있는 자세 촉구
이낙연 "납득할 조치 취해야" 심상정 "국감 증인 요청할 것"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15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서 '이상직 의원 및 정부·여당의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14일 직원 605명을 최종 정리해고할 방침인데, 이 같은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멈추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SPA)이 해제된 뒤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먼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이상직 의원 및 정부여당의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저 사측은 지난달 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98명을 희망 퇴직시켰다. 또, 이스타항공은 향후 항공기 6대 운항과 항공운항승명(AOC) 발급에 필요한 필수인력 등으로 재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전 직원 중 총 605명의 정리해고 대상 직원에게 이 같

은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현재 남은 직원은 총 590명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은 "주된 책임은 막대한 매각대금에 눈이 멀어 고용유지를 저버리고, 구조 조정에만 몰두한 오너 이상직 의원에

게 있다. 수많은 친인척과 페이퍼컴퍼니들이 관계돼 있는 불투명한 지배 구조, 편법 증여 등 수많은 경영상의 부정들 등으로 손실을 만회할 기회도 박탈하며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았다"며 "최근 기업 해체 수준의 대량 정리해고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오너 이상직 의원을 묵인했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관련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창업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이영, 최승재,

한무경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라"며 "재선 의원이자 212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 의원이 모든 짐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 사재 출연 등으로 적극 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인스타그램 '사이버불링 인식 제고' 온라인 간담회

"특정인 댓글 경고·차단으로 선제 대응"

AI기술 기반 부정적 댓글 방지

인스타그램이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막고 안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공간 조성에 나선다. 기술과 빠른 대처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와 유해 콘텐츠를 막겠다는 목표다.

인스타그램은 15일 사이버불링 인식 제고 및 포용적인 인터넷 문화 고취를 주제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필립 추아 인스타그램 정책 APAC 총괄은 인스타그램은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댓글 관리 기능을 업데이트해 이용자가 댓글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고, 댓글 필터링 기능을 통해 괴롭힘을 비롯한 불쾌한 댓글을 자동으로 숨길 수 있다. 댓글 고정 기능을 통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댓글을 세계까지 상단에 노출되도록 고정할 수 있다.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수 없도록 특정인을 차단할 수도 있는데 차단된 사람은 자신이 차단된 사실을 알 수 없다.



인스타그램이 15일 사이버불링 인식 제고 및 포용적인 인터넷 문화 고취를 주제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원희 촉구선수,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수, 윤대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이사, 인플루언서 다영(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이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또한 차단된 사람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해당 댓글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정적인 댓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댓글 경고 기능은 이달 중으로 도입된다. AI 기술에 기반해 부정적인 댓글이 게시되기 전 작성자에게 해당 댓글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스스로 댓글을 취소하거나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대현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수, 인플루언서 다영, 조원

희 촉구선수가 참여해 올바른 SNS 환경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윤대현 교수는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괴롭힐 수도 있기에 이를 막는 캠페인과 기술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연 교수는 "미국의 한 통계에서 사이버 불링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50% 정도라고 했는데,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이버 공간 가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미 약자가 된 경우 특정인을 차단할 때 대상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온라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T '시즌' 가을 맞아 신규 콘텐츠 공개

국내 최대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KT의 'Seezn(시즌)'이 가을을 맞아 로맨스 웹드라마와 리얼리티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한다.

로맨스 웹드라마 '웹드라마의 법칙'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연애를 하

다가 헤어지게 되는 흔한 연애사를 드라마로 풀어내는 비연애주의 작가의 이야기를 담는다. 15일 오전 11시 시즌에서 단독 선 공개되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동 시간대에 시즌 앱에서 시청할 수 있다.

10월 데뷔를 앞둔 올림엔터테인먼트

의 신인 7인조 보이그룹 '드리핀(DRIP PIN)'의 첫 리얼리티 '위아 드리핀(We are DRIPPIN)'도 시즌에서 공개된다. 17일 오후 6시 시즌에서 단독으로 첫 공개되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동 시간대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인기리에 생중계 방송이 진행된 '뽀뽀 투더 아이돌'도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현대L&C, 수해지역 1억 상당 전자재 기부

남원·담양 주택복구 등에 사용



현대 L&C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전자재 기업인 현대L&C는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과 전남 담양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벽지·바닥재 제품을 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산과 내장산 인근에 각각 위치해 있는 남원시와 담양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제방 유실 등으로 피해가 매우 컸던 지역이다.

현대L&C가 지원하는 제품은 바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컴워드-네이버, 사설인증 시장 공략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 등 협력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한컴워드와 네이버가 사설인증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한컴워드와 네이버는 15일 경기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홍승필 한컴워드 대표와 오경수 네이버 인증사업 총괄을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설인증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컴워드는 기존 공개키기반구조(PKI) 인프라를 활용한 사설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컴워드는 21년간 공인인증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고객층을 기반으로 '네이버 인증서' 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양사는 인증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빠른 시장 확산에 나선다.



15일 한컴타워에서 열린 한컴워드-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홍승필 한컴워드 대표(왼쪽)와 오경수 네이버 인증사업 총괄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컴

한컴워드는 2018년 웹기반 무설치 간편인증 솔루션인 '애니핀'을 출시해 삼성화재에 공급하는 등 사설인증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왔다. 이후에도 생체인증 솔루션인 '한컴패스'로 PC, 웹브라우저, 모바일, IoT플랫폼에서 생체인증을 지원하는 국제생체인증 기술표준 FIDO2 인증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인증 기술들을 개발해왔다. /구서윤 기자